

2012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평가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박은선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espark@kiep.go.kr, Tel: 3460-1228)

차 례 ●●●

1. 2012년 G20 정상회의 개요
2.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3. G20 회의 평가: 성과 및 과제
4. 한국의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주요 내용 ●●●

- ▶ 지난 6월 18~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제7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현안인 유럽 위기에 대한 대책,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금융개혁·무역·식량안보·개발의제 같은 기존 의제와 멕시코가 주도한 녹색성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 정상, 6개 초청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등 34개 국가 및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10개 섹션, 85개 항에 달하는 정상선언문과 부속서를 발표하였음.
- ▶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방향의 제안으로 IMF 자원 확충,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기한 연장,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지원 및 재정건전화 과제의 국별 제시, 그리고 기존 어젠다들에 대한 점진적·구체적 진전을 들 수 있음.
 - 유럽안정메카니즘(ESM) 조기 설립과 유로존 내 리밸런싱 촉진 촉구로 유로존의 지구적 노력 요구
 - 재정여력국의 성장 촉진, 환율유연성 제고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
 - IMF의 위기대응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4650억 달러를 추가 확보
 -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합의
- ▶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신흥국의 부상과 기존 G7 국가의 상대적 침체, G20과 병행한 브릭스의 공식회의 및 선언문 발표 등으로 신흥국의 주도권 강화 및 G7 그룹과 브릭스 간 경쟁구도 심화현상 대두
 - 미국에 이은 유럽의 경제위기, 신흥국과 브릭스 경제의 상대적 안정, 신흥국의 IMF 기여 확대로 신흥국 위상제고
 - 선진국 중심의 금융 및 개발 어젠다를 신흥국이 주도하고 브릭스 공식 활동의 확대로 힘의 균형 이동
- ▶ 한국은 보호무역조치 동결기한 연장, 개발의제와 녹색성장에서 주도적 역할로 국제사회에 기여
 - 한국은 보호무역조치 동결 1년 연장, 개발의제 및 녹색성장 어젠다의 실무그룹 대표로 기여
- ▶ G20 내 G7과 브릭스 간 경쟁구도 심화와 의장단 역할의 종료로 향후 한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G7과 브릭스의 그룹 간 경쟁구도 심화로 한국의 단독적 영향력 행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므로 중견국과의 협력, 실무회의 주도, 지적 리더십 배양 등의 대책이 필요함.

1. 2012년 G20 정상회의 개요

■ 지난 6월 18~19일 제7회 G20 정상회의가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되었음.

-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는 G20 국가 이외에 스페인·에티오피아·베냉·캄보디아·칠레·콜롬비아, 국제기구인 UN·IMF·세계은행·OECD·WTO·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노동기구(ILO)·국제농업식량기구(FAO)의 34개 국가 및 기관대표가 참석함.
- 제5~6차 G20 정상회의가 11월에 개최된 것과 달리 로스카보스 정상회의는 멕시코 선거일인 7월 1일을 고려하여 6월에 개최되었음.

표 1. G20 국가

분류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중동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오세아니아	EU 의장국, 러시아, 터키, 호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와 함께 외무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청년을 위한 Y-20, 노동 분야를 위한 L-20, 학자들을 위한 T-20 등 아웃리치가 활성화됨.

- 멕시코의 제안에 따라 최초로 비공식적 G20 차원의 외무장관회의가 2월 19~20일에 개최되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논의함.
- 이번 G20 정상회의에 앞서 4월 18~20일에는 최초로 G20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어 보호무역 저지와 고용창출 기여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함.
- 로스카보스 G20 비즈니스 서밋은 6월 17~18일에 개최되었으며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세계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 제7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의제와 올해 의장국인 멕시코가 추가로 제기한 의제가 논의되었음.

- 유로존 재정위기 타결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의제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정책공조 방안을 검토하였음.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IMF의 위기국 지원제도 및 회원국 감시에 대한 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원확충 및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표 2. 제 1~6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주요 의제
미국 (워싱턴) 200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항 및 47개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 채택 -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 국제 금융체제 개편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 재확인
영국 (런던) 200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 항의 정상선언문 및 2개 부속서 채택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 보호주의 저지 -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미국 (피츠버그) 200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항의 서문, 8개 주제와 50개 항의 본문, 2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G20 회의 정례화 개최 합의 - 출구전략 공조 확인 - 국제금융기구 쿼터 개혁 추진 -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 금융규제 개혁 및 감독방안 마련 협의
캐나다 (토론토) 20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항의 서문, 5개 주제와 43개 항의 본문, 3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공조 합의 - 금융부문 개혁 및 규제 강화 - 국제 금융기구 쿼터 이전 및 개혁 추진 -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협력 - 저개발국 지원방안 마련 협의 *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
한국 (서울) 20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서울 액션플랜) -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 금융부문 개혁 및 감독 강화방안 협의(바젤 III, SIFIs 등)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 - 보호무역 저지를 위해 협력 강화
프랑스 (칸) 20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항의 합의문, 95개 항의 선언문, 액션플랜 발표 - 거시경제 공조 관련 단기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합의 -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unique) 지위 확인 - 대형금융기관(SIFIs) 종합규제체계 마련 - 금융안전위원회(FSB)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및 기능 강화 -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 결과 승인

2.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의제 이외에 의장국인 멕시코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된 의제가 논의되었음.
 - 기존 회의에서 이어받은 주요 의제는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고용 및 사회보장’, ‘무역’, ‘국제 금융체제 강화’, ‘금융개혁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완화’ 등임.
 - 멕시코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의제는 ‘개발’, ‘녹색성장’이며,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이 논의됨.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유럽 재정위기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대해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의제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함.
-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 고용 및 사회보장, 무역,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개혁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변동성 대응, 개발, 녹색성장, 반부패 등으로 구성된 선언문에 합의하였음.
 - 각국 정상은 10개 섹션 85개 항의 정상선언문과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카보스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한 부속서에 합의함.

표 3.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의제		주요 합의
기존의제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조기 설립 및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결정 지지 • 유가안정을 위한 G20의 추가조치 및 사우디의 충분한 공급 보장 확인 • 정상후자국의 내수증진 및 경상적자국의 저축확대를 통한 리밸런싱 촉진 •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전환 및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약속 재확인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조치 연장 •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DDA 협상 진전 필요성 재확인
	국제 금융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재원확충 금액을 4,56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로 확정 •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 입장 재확인 •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의 이행사항 평가 여부 합의
	금융개혁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확대 지지 및 작업일정 재확인 • 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수집 활용을 위한 글로벌 법인식별자(LEI) 체계 구축안 승인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 노력 지지
	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칸 G20 농업행동계획 이행사항 점검 •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 인식 • 원자재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의지 확인
	기타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과 사회보장)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약속 • (반부패)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선 지지
멕시코 주도 의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행동계획 지지(추가)
	녹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녹색성장 관련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원 약속(추가)

가.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

- 각국 정상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유가 안정,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글로벌 리밸런싱 촉진 등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를 위해 각국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평가보고서(Commitment Report)를 작성하기로 함.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천 가능성을 제고함.
 - ※ 예: 미국은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급격한 긴축방지 및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 일본은 대지진 재건비용의 조기 집행, 이탈리아는 조기 재정건전화 조치 이행을 요구.
-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즉각적 설립(7월), 유럽투자은행(EIB)이나 EU 산하기금을 활용한 성장강화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유로존 국가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요구함.
- 글로벌 리밸런싱 진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경상적자국에게는 재정적자 감축 및 민간저축 촉진, 한국·독일·일본 등 경상흑자국에게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자유화를 촉구함.
- 환율 문제의 경우 펀더멘탈을 반영하도록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도 신속히 이행하여 환율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을 방지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억제하는 것에 재합의하고,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및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을 환영함.

나. 무역

- 무역 부문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음.
- 특히 한국 주도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및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조치를 2014년 까지 연장하기로 함.
-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진전 및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기 합의 달성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함.

다. 국제 금융체제 강화

- 글로벌 금융안정과 IMF의 위기에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IMF 재원확충 금액을 4,56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지난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중국이 430억 달러, 러시아·브라질·인도가 각각 100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억 달러로 브릭스가 총 750억 달러의 기여금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멕시코가 100억 달러, 터키가 50억 달러로 총 900억 달러의 기여금액이 확충됨.
- 반면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은 재정 상태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음.

표 4. 주요국의 IMF 자원 기여액

(단위: 10억 달러)

국가		금액	국가		금액	
G 2 0 회 원 국	유 로 존	독일	54.7	유 로 존 *	스페인	19.6
		프랑스	41.4		네덜란드	18.0
		이탈리아	31.0		벨기에	13.2
	비 유 로 존	일본	60.0	비 유 로 존	기타 유로국	20.0 (오스트리아(8.1), 핀란드(5.0), 룩셈부르크(2.7), 슬로바키아(2.1), 슬로베니아(1.2), 키프로스(0.6), 몰타(0.3))
		중국	43.0		스웨덴	각각 10.0
		한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각각 15.0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 멕시코, 러시아	각각 10.0		폴란드	8.3
	호주	7.0	기타국	18.5 (덴마크(7.0), 싱가포르(4.0), 체코(2.0), 콜롬비아(1.5), 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 태국(각각 1.0))		
	터키	5.0		2.0		
	남아프리카 공화국	2.0				
총 액				455.9		

* EU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G20 회원국으로도 볼 수 있음.

- 2010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을 2012년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개최 전까지 이행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터 개혁과 관련하여 2013년 1월까지 현재 쿼터 공식을 검토하여 2014년 1월까지 새로운 쿼터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함.
-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상대적 비중을 반영하여 IMF 쿼터가 재분배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금융 안정성 및 국가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 관점에서 양자 및 다자 감시활동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 현재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함.
- 환율정책에 관해 엄격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감시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라. 금융개혁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 바젤(Basel) 자본·유동성 규제,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G-SIFIs) 규제,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s),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 등 기존에 합의한 금융개혁을 완전하게 달성할 것을 약속함.
-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규제를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로 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FIs)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별 재량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향후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를 강구하기로 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증권사는 올해 말까지 선정방법론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G-SII)는 2013년 4월까지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함.
 - CDS 시장 기능에 관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오는 11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까지 추가 작업을 요청하기로 함.
- 금융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의 진전에 대해 지지하며 작업 완수를 요구함.
 - 멕시코가 추가로 제기한 금융교육,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과제와 관련하여 OECD와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가 추진하는 ‘금융교육 국가전략 상위원칙’ 및 칸 G20에서 합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에 대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함.

마. 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변동성 대응

-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농산물 생산성 향상, 시장 투명성 확보 등 칸 G20 농업행동계획 수행을 점검하고, 신규로 추가된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 보고서에 관해 논의함.
 - 향후 세계은행·IMF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 재원확보를 위한 분석을 시행할 것임.
- 원자재와 관련하여 실물·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강한 성장과 식량안보를 위해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시장규제·감독국의 효과적인 개입과 적절한 규제·감독 체계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기로 재확인함.

바. 개발 및 녹색성장

-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다년도 행동계획, 다자개발은행(MDBs)의 행동계획, 고위급 패널 권고사항에 관한 진전에 대해 지지함.
 - 특히 올해 추진된 저소득 국가의 투자위험 분석보고서, 녹색교통 사례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개도국의 포용적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하고 강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합의함.
 - 포용적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 지식공유 및 자원이동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녹색성장지식공유 플랫폼(GGKP) 설립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지지함.
- 녹색성장과 지속적 발전이 장기적인 번영과 복지를 위한 강력한 잠재요소라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IMF·세계은행·UN의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각국은 2013년에 녹색성장에 관한 노력과 이행경과에 대해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 재난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 출범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칸 G20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추진할 것을 기대함.
 - 기후변화 재원마련 논의를 위해 G20 스터디 그룹을 창설하고 오는 11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사. 기타 의제

- (고용과 사회보장) 경제위기로 심한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실업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
 - 미국은 장기 실업자 직업 재훈련, 이탈리아는 임금 유연성 제고, 브라질은 노동과세 왜곡 축소, 한국은 여성과 청년의 고용기회 확대 등의 과제를 선정하였음.
- (반부패)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개선을 지지함.

3. G20 회의 평가: 성과 및 과제

가. 성과와 특징

■ 유로 지역 위기 관련 압력행사 및 세계의 우려를 전달하여 글로벌 리스크 논의의 중심 역할 수행

- 비록 구체적인 공동 행동을 결의하지는 못했으나 전 세계의 우려를 유럽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여 유럽 지역 지도자들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함.

■ 상황악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대처를 위한 합의의 진전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성 개선

-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1년 연장시키고, 금융 부문에서 IMF의 위기대응자금 규모를 확대한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성 확대를 가져온 실질적 기여임.

■ 기존 어젠다에 대한 구체화, 검증노력 제고 등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

- 경기회복, 재정건전화, 리밸런싱과 구조개혁에 대한 국가별 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공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이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특징을 보임.
- 거시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행평가보고서(Commitment Report)를, 녹색성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자기평가보고서(self-report)를 작성하기로 하여 진전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됨.

■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의 부상과 기존 G7 국가의 상대적 침체가 가시화됨.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기존 선진경제가 차례로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IMF 자본금을 추가 제공하고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세계경제에 수혜국가와 공여국가의 입장이 전환된 모습을 보임.

■ 기존 선진국 의제에 대한 신흥국의 참여증가 및 주도권 이양 현상 발생

- 금융개혁 관련 SIFI의 규제, 국제신용 개혁, FSB에서의 대표성 문제, 신흥국 입장에서 규제개혁 요구 등 선진국이 중심이 되었던 금융 어젠다에 신흥국의 입장이 반영되고 이슈 주도 현상이 증가함.
- 개발과 녹색성장은 선진국의 주제였으나 한국·멕시코가 의제를 주도하면서 신흥국이 제기한 이슈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는 현상 발생

- G20 의제를 경제 및 금융 중심에서 외교 및 사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아웃리치도 세대와 영역을 넓히려는 경향을 보임.
 - 멕시코는 처음으로 지난 2월 G20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심영역을 경제와 금융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시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이 서울정상회의에서 비즈니스 서미트를 도입한 이후 로스카보스 회의에서도 비즈니스 서미트가 지속되었고, 그 외 청년·학자, 노동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노력을 보임.

나. 개선과제

-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함.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시에도 세계경제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G20이 세계경제의 최고 관리기구로 출범한 현재에도 거대경제권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
 - G20이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대응기구에서 글로벌 경제의 거버넌스로 도약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 유로 위기의 글로벌화를 막지 못하고 있어서 위기대응기구로서도 한계를 노출함.
- 합의이행에 관한 검증노력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자기평가 혹은 자기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함.
 - 합의 이행을 스스로 평가하게 함에 따라 단순히 국제적 압력(peer pressure)만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말 잔치장(talk shop)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함.
 -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공식적(informal), 유연한(flexible) 포럼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며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라도 실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함.
 - ※ 예: 보호무역조치 동결 평가위원회 구성, WTO와 협력하여 내부평가 보고서 작성
- G7 그룹과 브릭스의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G7은 G20 정상회의 이전에 따로 모임을 가지고 상호 의견을 조율하거나 독자적으로 선정한 어젠다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브릭스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임.
 - 브릭스는 칸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로스카보스에서 G20 정상회의 전 브릭스 회원국 간 회의를 가졌으며, 처음으로 유럽 위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G7에 대응한 글로벌 리더십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함.

4. 한국의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서울정상회의에서 주도한 어젠다들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금융 분야에서 신흥국 입장을 반영하였으며 무역 분야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G20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임.

- 한국은 서울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개발 및 녹색성장 어젠다에 대해 실무그룹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글로벌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
- 한국이 제안한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1년 연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어 세계경제 침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
- 금융 이슈와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 개선, FSB의 대표권 관련 문제제기, IMF 자본 확충 및 쿼터 조정에 대한 적극적 역할 수행 등 실질적으로 기여
- 서울정상회의에서 시작된 비즈니스 서미트가 확대·발전되도록 기여함으로써 G20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

■ 지금까지 수행한 한국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G20 내에서 G7과 브릭스 간 경쟁구도 심화로 개별 국가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서울정상회의 이후 시간이 경과될수록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어젠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G7과 브릭스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어느 한 편으로 소속되지 않을 경우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더라도 반대편 그룹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결국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곤란한 입장에 처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이 2012년도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은 기존에 한국이 주도한 주제이며 이미 한국이 의장단에 소속되었던 시기에 제안한 것이거나 그에 연계된 것이어서, 올해 G20 내에서 발휘한 영향력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한국의 대응방향

- 중견국과의 협력: G7과 브릭스는 거대경제권 혹은 선진경제권으로 그 경제규모나 잠재력이 거대해 개별 국가 만으로도 영향력이 크므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정책보다는 그 외의 국가들 중 한국과 협력 가능한 중견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적절함.
 - G7 및 브릭스 간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G20 내의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한국의 이득을 보호할 수 있음.
- 실무 관련 회의 주도: 주요 어젠다가 제시될 경우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그룹이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현안을 연구하고 의견을 조율하게 되므로 이러한 실무 관련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비를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지적 리더십: 한국이 G20 정상회의 초기부터 경제력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 배경은 지적인 리더십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역량 배양과 활용은 한국이 G20 내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므로 국제대학원의 관련 프로그램과 연구기관의 전문부서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함. KIEP